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교회설립기념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은총처럼 내린 비가 그친 후 5월의 대지를 밝히는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햇살 같은 은총으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무논을 써 올려 이른모를 내는 농부들처럼, 굳어진 마음의 지각을 갈아엎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살이에 시달려 마음의 순수를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거짓 자아는 무너뜨리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상처 입은 이웃들을 지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의 길과 오롯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미7:18 .....	인도자
♠ 교 독 문 .....	66. 헌당 예배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이용한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함께
어린이 설교 .....	사랑의 말 .....	염혜영 선생
성경봉독 .....	히6:9-12 .....	임정자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희망 발전소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78.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	다함께
헌금봉헌 .....<찬양 : 이용한 장로 오성희 권사>.....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도 본성을 잃지 않는 물처럼,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세상에 생명과 기쁨을 가져가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당신의 가르침이며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청파 가족 찬양제	5월 기도의 밤
주관: 성가대	인도 : 김재흥 목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최인환 선생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김중수 권사

<b>5월</b>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김중훈	김애경	박효선	유경순
	헌금위원	강인식	이호원	김근중	김정숙	배삼순	이순정

## 낮은 곳을 택해 흐른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폐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병을 발견해내고 지성스럽게 치료해주었던 한 내과 의사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도시 빈민, 산업 노동자들 속에 뛰어들어 낮은 자들을 섬기며 의료 봉사를 통한 사회 변혁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장애인 분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당시 내가 하고 있던 장애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서민들이 모여 사는 외진 곳을 택해 병원을 개업하고 환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따뜻한 의사였습니다. 소탈한 성격으로 환자들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긴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서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는 인쇄물을 책상 서랍에서 꺼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는 최소한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존엄한 생명으로 대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맑은 양심으로 고뇌하며 치열하게 참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깊이 신뢰했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이 시대에 어떤 희망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그가 10년 가까이 꾸려온 병원을 후배 의사에게 넘겨주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채 홀연히 중국 의료 선교사로 떠나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과 아쉬움으로 눈물지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도 환자들의 진료 기록표에 일일이 그 환자에 대한 소견과 진료에 미진했던 부분을 적어서 후배 의사에게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낮은 곳을 택해 흐를 줄 아는, 아니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를 수밖에 없는 깨끗한 시냇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속상한 말이 무성한 요즘, 오래 전에 읽었던 『닥터 노먼 베쑨』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옛날과는 또 다른 감동의 물결이 나를 압도합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던 소년병이 간청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저 때문에 선생님이 남아 계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

다.”

베쑤는 그를 부드러운 손길로 다시 눌렀다.

소년 병사가 다시 애원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떠나십시오. 저는 심한 상처가 아닙니다. 저를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이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아무튼 어서들 떠나십시오. 이리다 적군이 들이닥치면…….”

베쑤이 소년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 분이면 끝나네, 지금 단 몇 분만 손을 보면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네, 그러나 지금 손을 안 대면 자네는 그 다리를 절단해야 돼.”

기관단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 수술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나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노만 베쑤는 캐나다 출신의 흉부외과 의사이자 보건 의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파시즘과 제국주의가 인간의 생명과 고귀한 가치를 파괴하는 가장 사악한 질병으로 판단하고 의술을 무기삼아 싸웠습니다. 스페인 내란에 뛰어들어 자기 피를 수혈해가면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는가 하면, 1938년 일본의 군사 제국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중국 땅으로 들어가 생명을 해치는 무리들과 싸우는 일에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수술 중 생긴 손가락 상처로 패혈증에 걸려 죽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결코 메스를 들면서 그 어떤 생명체일지라도 단순한 기계적인 유기체로 취급하지 않으리라. 사람이란 꿈을 가진 존재다. 이제부터 나의 칼로 육체와 동시에 그 꿈을 구하리라.

건강한 생명과 아름다운 인간을 꿈꾸며 끊임없이 낮은 곳을 택해 흐르는 참 의사들처럼 어둠을 끌어안고 푸른빛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 만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장병용, 『먹감나무 한 그루』 중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단지 제게 맡겨진 것일 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All I have is merely loaned, not given.

■ **마/음/으/로/읽/는/글**

## 처음 만나던 때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서로 말을 놓자고 합니다  
멈칫거릴 사이도 없이  
—너는 그 점이 틀렸단 말이야  
—야 돈 좀 꺾다우  
—개새끼 돼지고 싫어  
말이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친밀하게 느끼고 마침내  
먹살을 잡고/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경어로 인사를 나누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앞으로만 달려가면서  
뒤돌아볼 줄 모른다면  
구태여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먹이를 향하여 시속 140km로 내닫는  
표범이 훨씬 더 빠릅니다  
서먹서먹하게 다가가  
경어로 말을 걸었던 때로  
처음 만나던 때로 우리는  
가끔씩 되돌아가야 합니다(김광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조병무 송양진 이용한 오성희 김인걸 문영혜  
 김훈동 유경순 안종일 정현주 김용진 박효선 백승민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김성수 김애경 노정숙 김용길 최영혜 이소순 이은옥 박순희  
 박시내 고광승 이춘희 한지혜 박홍재 김희진 한완식 임정자 무명

###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정원석 김현영 백묘현 이동천 황경순 왕수명 박준희  
 이기분 김성자 전영자 김승현 김수진 고숙이

###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명순 박옥식 문금석 김철수 유영남 오진훈 노순옥  
 백묘현 김홍기 고재중 박홍재 김혜선 박영희 노영서 최주환 문복순  
 노정숙 길민수 최인환 나오미선교회 제2여성교회 시므온선교회 무명2

### 생일감사헌금:

이정규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유 영 남	연 합 속 회
베들레헬	윤 정 덕	정 경 례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이 권 화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설립기념주일** : 감사합니다. 75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75세였으니까, 이제 우리도 약속의 미래를 향해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2. **가족찬양제** : 오늘 오후집회는 성가대가 주관하는 '가족 찬양제'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3. **속장인도자회** : 교육관에서 속회공과 예비 교육모임이 있습니다.
4. **부장회의** : 오후1시에 사택에서 모입니다.
5. **기도의 밤** : 5월 5일(수) 저녁 7시 30분에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6. **연합속회** : 5월 7일(금) 오전 11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가나안속 식사준비 - 베들레헬속  
연합속회 이후에 선교부 주관으로 전도 나가겠습니다.
7. **한마음체육대회** : 5월 16일 주일은 제7회 청과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예년처럼 인덕대학 강당에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사립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가 낯선 친지와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8. **봉사활동** : 종묘급식봉사 - 5월 5일 오전 11시 15분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 5월 7일 오후 12시 30분
9. **전도세미나** : 중구용산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가 3일(월)-4일(화) 저녁 7시 30분에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10. **교회생활사진전** : 지난 1년간 우리 신앙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 돌아보는 생활사진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수고하신 문화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신앙실천** : 가정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한번쯤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물론 그 사립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헌화 - 장재영/김재영 집사(결혼기념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